설 가정 예배

예	식 사인	도	자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차	속	간	οl	

은혜로우신 하나님, 명절을 맞아 가정에서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의 삶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위해 베푸실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족이 다시 흩어져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일마다 풍성히 결실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위한 사랑에도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2021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0
성	경	봉	독 시편 105:1~11	맡	은	이

말	씀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니님 맡	은	0
권	면 맡	은	0
	어른 한 두 분이 선조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신앙적 권면을 나눕니다.		
찬	송 384장 다	같	0
주	의 기 도다	같	0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문귀화 목사

오늘 시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분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오직 찬양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뿐임을 강조하며, 거듭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방에 그분의 이름을 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과정을 길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간 후 그 땅에서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전락하여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이 찬양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받고, 울부짖고, 신음하던 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오셔서 직접 그 현장을 살피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그분이 정하신 뜻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5편은 이렇듯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차양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 자주 만날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 오래 준비한 계획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을 전부 아시고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과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도록 합시다.

마음을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온 가족이 힙을 합하여 그 일을 따르고 지키도록 합시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우리 집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시편의 고백이 우리 집안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1

설 가정 예배모범



설은 새해 첫 날을 기념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설을 맞아 예배를 통하여 조상 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기독교} 목 포 연 동 교 회